

# ‘IT839 글로벌화 전략컨퍼런스’ 盛了



협회는 지난 12월 7일 한국정보통신 수출진흥센터(ICA, 원장 김선배)가 주최하고 협회가 주관한 ‘IT839 글로벌화 전략컨퍼런스’를 GS타워 아모리스 홀에서 해외마케팅관련 기업 및 기관 관계자 약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정통부가 지난 2004년부터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위한 IT 정책비전으로 추진중인 IT839 전략 주요 분야의 글로벌화를 통한 우리 IT기업들의 해외진출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노준형 정보통신부 차관은 축사를 통하여 올해 세계IT경기 둔화, 원화강세, 고유가의 악재 속에서도 IT분야는 11월 현재 717억불의 수출

을 기록하고 있어 1990년대 IT수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지 10년만에 명실공히 국내 주력 수출산업으로 성장한 점을 강조하면서 IT839품목 중 최근 성과가 나오고 있는 DMB, 와이브로(WiBro), D-TV, 텔레매틱스(Telematics) 등의 해외진출을 통하여 국내 IT 기업들의 동반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 의지를 피력하였다.

## ■주제발표

▶김영진 한국가트너 전무는 ‘Emerging Trends 2010 Through 2015’라는 주제발표를 통하여 향후 10년 동안에는 몇몇의 선두 기업이 혁신을 주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이 생존을 위해서는 혁신을 주도할 것이며 사업기획 및 기술기획담당자는 신규역량이 무엇인지 평가하고 응용 가능한 미래기술과 방향을 이해하여 IT가 주도할 산업 및 사회변화를 간파하여 대응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비쿼터스 환경과 의미론적으로 연결하여, 스마트환경 및 일상생활의 인텔리전스기술이 기술변화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우리 정부의



IT839정책추진 방향을 포용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볼프강 스라빈스키 유럽상공회의소 IT위원장은 'The European IT & Telecom Scene' 라는 주제발표를 통하여 유럽 연합의 IT 현황이 독일, 영국, 덴마크 등 서유럽 국가(인터넷 보급률 50% 이상)와, 헝가리,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동유럽 국가 간(인터넷 보급률18% 이하) 편차가 크고 유럽연합 전체 PC 보급률 약 54%, 인터넷 보급률 약 43%(이상 Household 기준)로 그리 높지 않은 편이나, 전세계 GDP의 27%를 차지하고 한국의 3대 수출지역임을 강조하면서 유럽 진출에 가능성 있는 IT 분야로서 소프트웨어개발 분야를 추천했다.

▶전영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2006년 경제전망'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하여 2006년에는 세계경제의 쌍두마차인 미국과 중국의 경제가, 미국은 금리인상, 고유가 및 부동산 경기위축에 따른 민간소비 둔화로, 중국은 위안화 평가절상등에 따른 수출타격으로 활력이 둔화될 것을 우려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유리한 전략적 위치와 우수한 인력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 중소기업부터 글로벌 Niche 전략



을 강구하여 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오 후 세션에서는 트랙1에서 DMB(픽스트리, 신재섭 대표), RFID(세연테크놀로지, 이동원 이사), 정보보안(시큐아이닷컴, 김태영 부사장), 텔레매틱스/WiBro(이너규브, 정윤기 대표), 모바일소프트웨어(네오애텔, 김윤수 대표) 등 주요 IT839전략 품목에 대한 해외시장 정보 및 진출전략 세미나가, 트랙2에서는 중국(용인대학교, 박승찬 교수), 미국/유럽(리딩벤처파트너스, 정윤희 대표), 인도(BTN 김응기 대표), 중남미(글로벌커머스협회, 이창우 회장), 러시아/CIS(테라테크, 이종영 대표) 등 주요 시장별 IT 시장 현황과 진출전략에 대한 세미나가 이어졌다.☑